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원더청년’ 선정

고창군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원더청년(고수면)'이 선정됐다

‘고창군 원더청년’은 고수면의 전통 농기와 씨간장 등 고창 농기를 활용한 장 담그기 체험과 씨유산 헤리티지(씨간장 발효 과정), 숯마루 헤리티지(금속놀이타에서 자연체험), 족보 헤리티지(가족과 공동체 유산 기록)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5년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18~39세)이며 구성원의 40% 이상이 청년인 단체가 지원가능하며 단체로 1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청년 시는 모양이 선정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벼 병해충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고창군이 벼 재배면적 1만 1,115ha 대상으로 벼 병해충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14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벼 이앙 전에 모판에 약제를 살포해 논에서 방제가 어려운 저온성 해충(벼잎물가파리, 벼물벼룩)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같은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의성을 지닌 약제다.

특히 약효 지속 기간이 90~120일이나 될 정도로 길다. 이앙 전 간단한 처리로 7월 말까지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90%이상의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모내기전 제초제와 연이어 사용하거나, 상자 처리제 사용 후 모내기가 늦어질 경우 등은 초기 생육장애를 겪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손 맞잡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 상생협력센터 내 14개 단체 참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송희복 이하 부안군 지속협)는 지난 28일 상생협력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이하 상생협력센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14개 단체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및 현판식은 부안군 지속협이 주최해 탄소중립 실천산인 협약서 낭독, 현판식, 탄소중립 생활 실천 퍼포먼스(단체별 탄소중립 홍보스티커 계단 부착)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상생협력센터에 상주하는 14개 단체 및 회원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약식에는 부안군 지속협을 포함해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제·지방세 통합민원실(부안군), 국제·지방세 통합민원실(정읍세무서),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부안군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부안군협의회, 부안군민원콜센터,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안군시니어체육협의회, 사)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가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동의 뜻을 갖고 생활 속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해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단체 간의 협력체

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협력센터 건물 외벽에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약속합니다 라는 현판이 크게 내걸렸으며 이 현판은 심성희 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됐으며 김종철 의 여러 작가가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

현판의 동근 바퀴에는 각 단체가 함께 화합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4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 확정

산업경쟁력 강화 나서

정읍시가 지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40년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신태인 우

령리·연정리, 태인면 오봉리, 입암면 천원리 등 4개소 총 43만 323㎡ 규모다.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해당 공업지역을 산업지원기반이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

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공업지역별 건축물 밀도 계획, 지원기반시설 확충, 환경관리 방향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포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각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해 정읍 공업지역이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환경을 수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5월 가정의 달 맞아 지역경제 활력 UP

정읍사랑상품권 · 공공배달앱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등 혜택

정읍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에도 확대,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읍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월 1일 오전 8시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배달앱 '위메프'를 통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부터 6일까지 5000원 할인 쿠폰이 선착순 지급되고, 위메프 앱

을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 한 달간 일반 가맹점은 최대 2000원, 전통시장은 최대 4000원의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초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 7명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하고, 수료 후 최대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정읍시, 청년창업가 성장 지원… 수료 후 최대 1500만원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 7명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하고, 수료 후 최대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 대상자는 지난 3월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1기) 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로, 본 과정을 이수하면 연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2022년부터 4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집합 교육이 2회 진행된다.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세무 회계 등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7회 이어질 예정이다.

총 9회 교육 가운데 70% 이상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창업자금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마케팅, 회계 등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산위터파크 일원 임시주차장 개방

정읍시,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주력'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드림랜드 동화마을 조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 대책에 나섰다.

시는 현재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드림랜드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여 면에 달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내장산 위터파크(음악분수) 전면부 일부 부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60여 면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입산물체합장에도 194면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 만

람,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곳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내장산 위터파크(음악분수) 일원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인근에 추진 중인 280여 면 규모의 배후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마을은 자연 속 힐터를 테마로 오는 7월 개방을 앞두고 있다. 완공되면 국민여가캠핑장과 도내 최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하버 로즈, 현재 진행 중인 엑스퍼트 스포츠시설, 기적의 놀이터 등과 연계돼 미래 정읍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